

건강 칼럼

다소 생소한 자연주의 출산, 미리 체크해 봐야 할 점은?

최근 몇 년 사이 여자 연애인들이 '자연주의 출산'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자연분만과 헷갈릴 수 있지만 자연주의 출산은 의료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자연분만과는 차이가 있다.

많은 산모들은 출산 중 발생하는 위급상황으로 태어, 산모 건강이 위협받을까 걱정돼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의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자연주의 출산은 의료진이 개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의사와 조산사가 상주를 하되 불필요한 처치를 낮추면서 출산 과정이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자연주의 출산은 분만실부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로 초상이 된다. 기존 출산은 산모의 프라이버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의료진 중심으로 수동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연주의 출산은



정영철

광명 gm제일산부인과 원장

산모와 아기가 중심이 되면서 능동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약물로 무통수사 등을 지양하고 관장, 제교, 회음부 절개, 내진 등 관행적인 의료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문제나 출산으로 생기는 골반 움직임, 회음부 열상 등 손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물론 의료적 조치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치는 산모의 상태나 출산 과정 및 그 이후의 흐름에 맞춰 진행을 한다.

출산 시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와 산모가 준비되었을 때 출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고 기다려준다.

정서적인 안정이 취해진 뒤에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낮춘 상태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태어난 아이는 즉시 부모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주의 출산을 희망한다면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는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조산사가 함께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내부의 시설도 중요하게 가족 분담실에서 일반적인 산부인과 분담침대가 아닌 자연주의 출산 맞춤형 침대가 갖춰져 있는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목조가 준비되어 있는지, 남편과 함께 교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출산 과정에 함께 하는 돌라가 진통 자체 경감, 분만 유도 자제, 호흡법 등을 알려주면서 존중과 배려를 받는 출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출산의 틀에서 벗어나 산모와 아기를 위주로 한 자연주의 출산 방법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지, 병원의 시설이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공사장의 월레비 문제

요즘 공사장의 월레비를 둘러싸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정부와 건설노조가 참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월레비는 새로운 문제로 최근에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랫동안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없애야 할 대표적인 관행으로 월레비를 꼽았다. 최근 조사한 불법 행위 가운데 60%가 월레비 요구였다. 이는 정부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급여와 별도로 매달 450만 원을 이른바 월레비로 줬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조종사가 월레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월레비를 강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월레비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지만, 풀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의

돈은 그렇게 협박과 강요가 임종이 없어서 돌려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잡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엔 "건설폭력수사단을 만든다. 채용이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면 협박, 공갈죄를 적용한다. 건설노조는 월레비를 없애는 것은 동의하면 서도 모든 원인을 노조 탓으로만 돌린다고 반발했다.

특히 월레비는 시공사들이 잔업 등 추가 작업을 요구하며 먼저 줬다고 반박했다. "위험한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건설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용자들이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와중에 생겨난 게 월레비"라고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채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레비를 둘러싼 갈등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창 동계 출신 어느 삼형제

최근 전북 순창 동계 출신 어느 삼형제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500만원을 기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형제는 바로 김택수 전북도인일보 회장,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 김관수 호남제일고 이사장 등이다.

삼형제가 개인 연간 최고액 500만원씩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동시에 기부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전해진다. 이들 삼형제의 고향 사랑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매년 고향 동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도 나누고 있다. 말형인 김택수 회장은 지난 2020년 기록적 폭우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향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복구에 큰 힘을 전했다.

김택수 회장은 경초장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다. 경초장화재단은 호남고속 설립자이자 삼형제의 선친인 고(故) 김재

호 회장의 호인 경초를 따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학교법인 호남제일고등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재단은 호남고속 임원들이 뜻을 모아 회사의 이익금을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김택수 회장은 "고향을 생각하면 항상 애뜻한 마음이 든다. 내 고향 순창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올 겨울 순창에 유래 없는 폭설과 한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향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경초 고향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자자한 전북 순창 출신 '의용' 삼형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번 삼형제 기부를 계기로 많은 출향인들이 순창군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기록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산불진화복 직접생산증명서 악용 '속임수' 낚음 철저히 조사해야

산림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가을철과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복을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그리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난연성 소재로 만든 산불진화복을 구입해 착용토록 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고,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요즘, 산불진화복의 역할은 불속에서 진화복에 의지해 산불진화를 하는 진화대원들에게는 안전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부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호) 산불진화복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 지난해 1월 1일 시행)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와 경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중소

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부 장관은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게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데, 이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다.

따라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진화복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허위사실을 차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발급받아 직접생산은 하지 않고 직접생산증명서만 있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된 산불진화복을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해외생산품이나 타 회사 완제품을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각 기관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전북도내에서도 A업체가 지난 8일 김제시와 산불진화복을 계약하고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마치 해외생산품을 직접 생산한 제품처럼 속여 납품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익산시 산불진화복 구매 관련 입찰 견에도 참여해 2순위업체로 계약을 하고 중국산제품을 생산국가 라벨을 제거하고 납품했다.

국내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돈벌이에 급급한, 자력도 되지 않은 일부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중소기업이 정말 어려운 요즘 직접생산증명서만 발급받아 해외생산품에 생산국가 라벨을 제거하거나 타 업체 완제품으로 공인할에 참여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해 물품을 납부하고 있다.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하는 산불진화복과 관련된 담당자들은 어디에서 생산을 한 지도 모르는 출처불명의 산불진화복을 공급 받아 착용을 하고 있으나, 수요처에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강력한 법률 조항이 없어 업체들에게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찰에 참여 낙찰을 받았지만

도 해당업체가 생산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해당 기관에만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하부업체 중소기업부에서는 생산현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정된 방법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았거나, 이러한 업체들에게 해외생산품 등을 공급 유도하는 업체들에게도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취소 및 국고금 환수 조치를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각 1호 및 3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허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해 납품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관에서는 물품계약을 하기 전, 생산현장 확인을 통한 점검 등을 필히 해야만 하고 전문적인 실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중소기업부에 도움을 요청해 꼭 관련기관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식/지방부고창주재부장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boat on water and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text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quality journalism and its role in supporting the region.